스위스 장터.

가장 생기 넘치는 여행 스팟

로컬 피플과 프로덕트를 만날 수 있는 곳
도시와 마을의 장터에서 만나는 진짜 스위스
장터에서 마주하는 더욱 풍성한 체험
농부가 직접 키운 싱싱한 과일과 채소
농가에서 만든 치즈와 정성껏 구운 빵과 과자들
신선한 고기로 만든 소시지도
이국적인 색채 가득한 포토제닉 스팟

장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관광 상품으로 주목 받은지 오래 되었다. 최근에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 하동 화개장터가 3 년 연속 국비 지원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전국의 유명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인 '팔도장터 관광열차'도 운행중이다.

대부분의 스위스 도시와 마을에서도 일 주일에 한두 번씩 장이 선다. 주변 농부들이 직접 키우거나 생산해서 갖고 나온 제품들이 많으므로, 요즘 주목 받는 '파머스 마켓(Famers' Market)'이라 불러도 좋다. 제철 과일, 채소는 물론 치즈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치즈, 어부가 갖고 나온 생선, 소시지나 햄을 만들어서 들고 나온 정육점, 아침에 갓 구워서 들고온 빵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가득하다. 꽃 코너도 있는데, 이런 장터는 주로,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열리게 마련이다. 일 주일에 한 번씩 로컬들은 이 장터를 찾아 장도 보고, 동네 주민과 만나 담소를 나눈다. 주변 식당에서는 이 장터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메뉴를 만들어 낸다. 관광객들은 이런 장터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각종 채소와 과일, 꽃들이 빚어내는 이국적인 색채는 작품 사진을 담기에도 충분할 정도다.
레스토랑에서 맛 보는 품위있는 정찬은 아니지만, 장터에서 고심해 고른 빵 하나와 잘 구워낸 소시지 하나, 짙은 빛깔의 과일 한 봉지를 들고 햇살 찬란한 광장 한 켠에 앉아 행복한 순간을 맛볼 수 있게 해 준다.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꽃 한 다발을 사 보아도 좋다. 여행지에서 꽃아 둘 장소도 없는데 무슨 꽃이냐 물을지도 모르지만, 여행 중에 꽃 한 다발 사는 기쁨은 참 특별하다. 여행 중 만난 이에게 선물하기에도 그만이다. 단, 일반적으로 장터는 5 월부터 10 월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1. 취리히(Zürich)
취리히 호반의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에서는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취리히에서 가장 어여쁜 제철 꽃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뷔르클리매애르트(Bürklimäärt) 시장이다. 토요일에는 같은 뷔르클리플라츠에서 커다란 벼룩시장이 열린다. 로컬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벼룩시장 구석 구석을 꼼꼼히 둘러 보느라 여념이 없다.

2. 루체른(Luzern)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이면 루체른의 로이스(Reuss) 강가를 따라 장이 선다. 구시가지와 카펠교 풍경이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로컬들이 꼭 들르는 곳이자, 카펠교 주변의 레스토랑이 식자재를 구입해 맛깔난 샐러드를 만드는 장터이기도 하다.

3. 생갈렌(St. Gallen)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매주 금요일, 바디안(Vadian) 동상 주변에 장터가 열린다. 이 장터는 주변 농부들이 직접 생산품을 들고 나와 판매하는 곳으로, 직거래가 아닌 중간 상인은 판매 권리가 없는 장터라 로컬들에게 더욱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4. 베른(Bern)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이면 베른 구시가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다. 국회의사당, 분데스하우스(Bundeshaus) 앞에서 장이 서는데, 다채로운 로컬 채소와 과일은 물론, 장터를 구경하며 간식으로 먹을만한 먹거리도 가득하다. 장을 봐서 구시가지를 거닐며 맛있는 여행을 즐겨도 좋다.

5. 빈터투어(Winterthur)
취리히 근교의 빈터투어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거부할 수 없는 냄새가 슈타인버가쎄(Steinberggasse) 골목을 따라 퍼져 나간다. 농장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 잡곡빵, 치즈, 생선, 꽃, 허브 등 다채로운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아침 일찍이면 출근 전에 발길을 서두른 로컬들이, 이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부모들이 장터를 빼곡하게 메운다.

6. 벨린쪼나(Bellinzona)
스위스 남부의 고성으로 유명한 마을, 벨린쪼나의 토요 장터는 스위스에서도 유명하다. 피아짜 노제또(Piazza Nosetto) 광장부터 구시가지의 골목을 따라 펼쳐지는 장터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가판대가 빼곡히 들어선다. 미식가들도 일부러 찾는 장터로, 군침도는 먹거리가 가득하다. 로컬들은 값싸게 진귀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장터를 샅샅이 뒤지기도 한다. 로컬들이 곳곳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정겹다.

7. 로잔(Lausanne)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로잔의 구시가지는 시끌벅적 해진다. 리폰느(Riponn) 광장의 베이커리 가판대가 인기인데, 이 곳의 코코넛 마카롱은 꼭 한 번 먹어 보아야 한다.

*** 사진 중, 생갈렌 사진은 반드시 저작권 표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5_StGallen_Daniel M. Frei_Stadtführung.jpg - St.Gallen-Bodensee Tourism / Daniel M. Frei
5_StGallen_Mattias Nutt_Vadian.jpg - St.Gallen-Bodensee Tourism / Mattias Nutt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